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1. 10. 13(수)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문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변화의 서막을 열다** - 문경 신기동 구)쌍용양회 부지 수소연료전지발전 착수, 40MW규모 -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관광문화예술도시 문경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탄생	도시재생과	
② **경북도, 제2회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산학연 기술교류회 개최** - 지능형 디지털기기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상생협력의 장 마련 - '초연결사회의 지능형 디지털기기, 상생·융합·협력을 더하다' 는 주제로 열려	과학기술정책과	
③ **경북도, 배터리 세컨드 라이프 신산업 육성** - 13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식 개최 -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산업 전초기지 조성 청사진 -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기능과 역할 수행	4차산업기반과	
④ **경북도, 곤충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 2년 연속 최다 선정** - 총사업비 22억 4000만원 확보 - 곤충산업 지역별 거점화 돌입	친환경농업과	
⑤ **영일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관리 우수 해수욕장 선정** -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최적의 휴식 공간 제공	해양레저관광과	
⑥ **경북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수어(手語) 방송 진행** - 12일부터 네이버 쇼핑라이브 사이소 채널을 통해 6회 방송 - 라이브 방송 시 수어와 함께 전달, 청각장애인에게 도움	농식품유통과	
⑦ **경북人포럼, 경북도 인구이슈와 대응전략 모색** - 전국 인구분야 전문가 30명 참여 - 김근용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진행 - 최윤경 위원, 이진숙 교수, 배진원 부연구위원 발제	인구정책과	

- 계 속 -

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1. 10. 13(수)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⑧ 어제보다 더 안전한 경북,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10월 현재, 대상 1704개소 중 1215개소 점검 완료 - 12일, 영양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 - 20일까지, 점검 완료 시설 대상 이행실태 점검	사회재난과	
⑨ 전국체육대회, 방역 금메달 따기 위해 온 힘 쏟는다! - 선수 전용 선별검사소 운영, 경기 차질 없도록 신속한 결과 통보 - 6개 상설 선별검사소, 2개 출장 선별검사소 운영	전국체전기획단	
⑩ 경북소방,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조심 또 조심 - 올해 9월 말 기준, 농기계 사고 433건 · 사망 20명 부상 413명 - 60대~80대 사망사고 가장 많아 - 고령화로 조작 미숙, 부주의가 주요인	소방본부	
⑪ 이철우 경북도지사, 농가 벼수확 도움에 구슬땀! - 문경 영순면 율곡리 황금 들녘에서 벼베기 및 농업인 격려	친환경농업과	
⑫ 내수면 수산물 시제품, 경북식품박람회에서 최고 인기 -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개발시제품 2종 전시·홍보 - 3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에게 호평 - 민간기술 이전, 시장조사 통해 식품개발 기초자료 활용	수산자원연구원	
⑬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고충 해결에 박차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본격 운영	자치경찰총괄과	
【 동 정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주 이산선원 복설 준공식 참석**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3(수)】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작성자	과 장	김 충 복		
			사무관	이준홍	주무관	김인규
		연 락 처	054-880-3945			

경북도, 문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변화의 서막을 열다

- 문경 신기동 구)쌍용양회 부지 수소연료전지발전 착수, 40MW규모 -
-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 관광문화예술도시 문경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탄생 -

경상북도는 13일 문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구)쌍용양회 부지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윤환 문경시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지역 도의원, 시의원, 윤태일 주민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구)쌍용양회 부지(1만 5000㎡)에 40MW급으로 조성돼 20년간 운영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로 인해 4인 가구기준 약 9만 세대 전력 공급과 167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모든 시설공간이 수소생산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발전소 운영에 따른 350억 원의 세수 확보와 발전소 인근 지역지원금 57억 원이 지원된다.

오늘 착수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선정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공공의 선투자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유휴·노후화된 산업·경제 거점과 주변지역 정비를 통해 新경제거점 형성으로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

문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UNKRA 산업유산인 구)쌍용양회 문경공장을 활용한 최초의 시도로 2026까지 총사업비 3532억 원을 투입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그린에너지 플랫폼 기반조성, 스포츠융복합테마시설, 월드힐링센터 등을 조성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 3880개가 창출될 예정이다.

<문경 신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사 업 명 : 그린뉴딜로 가는 문화경제 플랫폼 (UNKRA 문경 팩토리아)
○사 업 비 : **3,532억원** (2021~2026년), ○ 면적 : 316,823㎡
○사업내용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40MW)**, 그린에너지 플랫폼 기반조성사업, 스포츠 융복합테마시설,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월드힐링센터

▸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 UNKRA 산업유산, 국내최초 내륙형 시멘트공장, 1957준공, 준공당시 이승만대통령 참석, 2018년 폐업
※ **UNKRA(유엔한국재건단)** : 6.25전쟁이후 한국의 구호와 재건 목적의 국제설립기구

이러한 산업유산의 보존과 창조적 재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는 신기동 일원은 관광문화예술도시 문경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탄생 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소산업 선점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북에 이번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문경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밝혔다.

문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수소연료전지발전 착수식 계획

UNKRA 산업유산인 (구)쌍용양회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착수를 통해 지역경제 거점 조성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10. 13(수) 15:00 ~
- 장　　소 : **문경시 신기동 쌍용양회 공장**
- 참 석 자 : 80명 정도
  - 도지사, 도의장·도의원, 문경시장, 문경시의장·시의원, 국토부 등
  - 한국서부발전㈜ 사장,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영남에너지서비스㈜ 본부장 등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 등
- 내　　용 :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인사말씀, 기념 세레모니, 촬영 등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40~15:00	20′	식전환담	환담, 홍보 영상
15:00~15:05	5′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15:05~15:10	5′	경과보고	문경시
15:10~15:15	5′	감사패 수여	문경시장 등
15:15~15:20	5′	환영사	문경시장
15:20~15:35	15′	인사말씀(기념사,축사)	지사님, 의장님, 시의회 의장 한국서부발전사장 등
15:35~15:50	15′	기념 세레모니, 촬영	주요 내빈
15:50~15:55	5′	폐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3(수)】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과학기술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홍 석 표		
			사무관	유해복	주무관	조정화
		연 락 처	054-880-2433			

경북도, 제2회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산학연 기술교류회 개최

- 지능형 디지털기기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상생협력의 장 마련 -

- '초연결사회의 지능형 디지털기기, 상생·융합·협력을 더하다'는 주제로 열려 -

경북도는 13일에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초연결사회의 지능형 디지털기기, 상생·융합·협력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제2회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합동 기술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경상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와 벡셀, 오성전자 등 도내 전자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34개 기업의 대표 및 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또 대구가톨릭대학교 IT관련 교수·학생과 금오공대·동국대 산학협력단 및 연구기관 관계자도 함께 했다.

이날 기술교류회는 지능형 디지털기기 기업의 보유기술을 소개하고 핵심기술의 활용사례와 업계의 동향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사태로 촉진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또 홍보부스 탐방(기업의 우수제품 및 대학 캡스톤디자인 설명), 세미

나(정부R&D동향, 지능형디지털기기 핵심기술 및 활용사례), 기업의 수요-공급기술 간 교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의 R&D혁신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의 휴스타 및 LINC+ 사업단 등에 소속된 학생들의 우수 성과물 10점도 전시됐다.

한편, 인공지능(딥러닝)과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미의 혁신기업인 포인드는 '봄플랫폼'이라는 CCTV관제 및 얼굴인식 솔루션 제품을 전시해 기업의 혁신기술을 홍보했다.

또 지역학생이 개발한 '안면인식기반의 보행자 유동량 측정시스템'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4차 혁명시대에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혁신은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산학연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 '21년도 경북행복경제 산학연 혁신 플랫폼 지원사업-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공동기술교류회 개최(안)

◇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 및 공급기술 간 거래 촉진을 위한 공동기술교류의 장 마련

□ 행사개요

○ 주　　제 : **"초연결사회의 지능형 디지털기기, 상생·융합협력을 더하다"**

○ 일　　시 : '21. 10. 13.(수) 10:30 ~ 15:10

○ 장　　소 : 구미 금오산호텔 대연회장(구미시 금오산로 400)

○ 주최/주관 : 경상북도/(재)경북테크노파크

○ 참석대상 : 50명 (※ 전시부스 별도 운영)　　**※ 임석관 : 경제부지사**

-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지능형디지털 분과 기업
-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시군 협력기관*, 지역대학** 등

* 협력기관 : 포항TP, GERI, 경북자동차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등
** 지역대학 : 금오공대, 동국대, 대구가톨릭대

○ 주요내용 : 지능형 디지털기기 기업의 수요·공급기술 소개, 핵심 기술 활용 사례와 업계 동향 정보 공유 등

□ 시간계획(안)　※ 세부 일정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30	'30	• 참석자 등록 및 기술교류회장 안내	
10:30~10:35	'5	• 인사말씀	道 경제부지사
10:35~10:45	'10	•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및 기술교류회 소개	경북TP
10:45~11:45	'60	• 중소기업의 정부R&D사업,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1:45~12:10	'25	• 홍보부스 탐방(기업 제품 및 대학 캡스톤디자인 설명)	
점심 및 휴식 (1부) 12:10~12:40, (2부) 12:40~13:10			
13:10~14:20	'70	• 지능형디지털기기 핵심기술 및 활용사례	
14:20~15:10	'50	• 수요기술과 공급기술간 기술교류(자유토론)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3(수)】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4차산업기반과		
		작 성 자	과 장	박 인 환	
			팀 장	손정민	주무관 이현준
		연 락 처	054-880-2477		

경북도, 배터리 세컨드 라이프 신산업 육성

- 13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식 개최-
-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산업 전초기지 조성 청사진 -
-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기능과 역할 수행 -

경상북도는 13일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동해면 공당리 일원)에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이하 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경북도, 포항시, 도·시의회, 국회의원, 지역 유관기관 및 배터리관련 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총 사업비 107억(도 27, 시 80)을 들여 지난해 2월에 착공했으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수거·보관·성능검사·등급분류 등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한다.

센터는 배터리 보관동(1213㎡), 연구동(885㎡), 사무동(1450㎡)으로 구성돼 있다.

배터리 보관동은 대구경북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로서 국내 최대 규모(약 1000개)의 사용 후 배터리를 보관하고, 잔존가치에 대한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를 통해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동은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사무동은 사업화 지원 시설 및 기업의 입주공간으로 활용된다.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2019년 7월 지정 이후 GS건설을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줄을 이으며 가장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임시로 블루밸리 산단에 위치한 강관기술센터에서 폐배터리의 보관 및 성능·잔존가치 평가 시설을 운용하고 있어 향후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 처리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센터 준공으로 포항은 국내최초 '사용후 배터리 수거-보관-성능평가 및 등급분류-재활용·재사용'의 전주기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생태계를 완성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북도는 환경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487억원)' 및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22. 상반기)'과 연계해 센터를 국가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산업의 거점으로 녹색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경북의 배터리 특구가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교범이 됐다"라며, "지방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중앙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만들어낸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포항은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이후 명실상부 배터리 선도 도시로 거듭났다"라면서, "Post 철강시대, 포항이 K-배터리를 이끌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식」계획

❖「경상북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기 道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소재, 부품, 재활용산업 간 밸류체인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식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21. 10. 13.(수) 14:00

○ 장　　소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內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 참석대상 : 50명 정도

- **(중앙)**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규제자유특구과장 등
- **(道)** 경제부지사, 도의원, 4차산업기반과장 등
- **(市)**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 **(연구기관 등)** 경북TP원장 및 특구 기업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경과보고, 준공 퍼포먼스, 라운딩 등**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3:55	15′	▸ 내빈영접 및 식전환담	센터內 사무동 환담장
13:55~14:00	5′	▸ 이 동(사무동 → 행사장)	
14:00~14:05	5′	▸ 개회(국민의례, 내빈소개 등)	사회자
14:05~14:10	5′	▸ 홍보영상	
14:10~14:15	5′	▸ 경과보고	포항시 일자리경제실장
14:15~14:20	5′	▸ 환영사	포항시장
14:20~14:30	10′	▸ 축사	중기부 차관, **道 경제부지사** 도의회, 시의장
14:30~14:40	10′	▸ 준공 퍼포먼스	참석자
14:40~15:00	20′	▸ 센터 라운딩	

참 고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현황**

□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개요

○ 위　　치 :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포항 남구 동해면 공당리 1025-3)

○ 사업기간 : 19. 10. ~ 21. 9.(2년)

○ 사 업 비 : 107.72억원(도 27.52, 시 80.2)

○ 규　　모 : 부지면적 8,050㎡(2,435평), 연면적 3,549㎡(1,073평)

○ 조 감 도



① 배터리 보관동 : 1,213㎡/ 지상 1층

- 배터리 보관(1,000여대) 및 압출하 시스템 등

② 사무동 : 1,451㎡/ 지상 3층

- 사무실, 임대공간, 전시실 등

○ 평가동 : 885㎡/ 지상 1층

- 안전성/신뢰성 평가 등

○ 추진경과 및 계획

- '19. 07. 24. :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 '19. 10. 25. :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건립계획수립
- '20. 08. 03. :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 '20. 12. 04. ~ '21. 09. 27. : 센터 착공 및 준공
- '21. 10. 01. ~ :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연구개발 육성지원사업 추진

※ 관리·운영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 기대효과

○ 환경부 연계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역할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성능·안전성·신뢰성 평가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환경부 후속사업*의 인프라로 활용하여 배터리 해체 자동화 공정 설비 구축 및 폐배터리의 친환경처리를 위한 R&D 실시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21~'23년, 487억원)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0. 13(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작 성 자	과 장	백 승 모	
			담 당	류한영	주무관 최익제
		연 락 처	054-880-3362		

경북도, 곤충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 2년 연속 최다 선정

- 총사업비 22억 4000만원 확보 -

- 곤충산업 지역별 거점화 돌입 -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곤충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인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유통사업지원’ 2개 분야에 2년 연속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9월 전국 지자체 공모신청 후 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경북에서는 곤충산업화지원에 예천양잠농업협동조합(예천), 느림보곤충나라(문경), 곤충유통사업지원은 경북잠사곤충사업장(상주)이 각각 선정됐다.

이로서 총사업비 22억 4000만원(국비 7억 2000만원, 지방비 9억 2000만원, 기타 6억원)을 확보해 곤충·양잠분야의 생산·가공·유통체계 고도화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선정결과】

* 곤충산업화지원 : 총 5개소(**경북 문경, 예천,** 전남 담양, 전북 남원, 충북 보은)
* 곤충유통사업지원 : 총 2개소(**경북(잠사곤충사업장)**, 충북 청주시)

곤충산업화 지원사업(20억원)으로 선정된 예천양잠농업협동조합은 양잠농가 사육시설 현대화와 양잠산물 대량 선별·유통시설 설치, 느림보곤충나라는 농가보급형 사료곤충 종자생산과 사료곤충 단미사료 가공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곤충유통사업 지원사업(2.4억원)은 경북잠사곤충사업장과 5개 협력기관*이 참여해 곤충원료 판로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곤충 간편식품 개발, 안전성 검사비 지원, 표준먹이원 개발, 곤충산업 단계별 맞춤교육 등의 세부사업을 실시한다.

* 협력기관 : (사)경북곤충산업협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예천양잠농업협동조합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별 특화된 곤충종의 생산 및 가공·유통을 각각 전담할 협력·거점농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R&D, 교육,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은 물론, 경북의 '곤충산업 지역별 거점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곤충산업화지원', '곤충유통사업지원' 2개 분야 동시 선정으로 곤충원료 전처리·1차가공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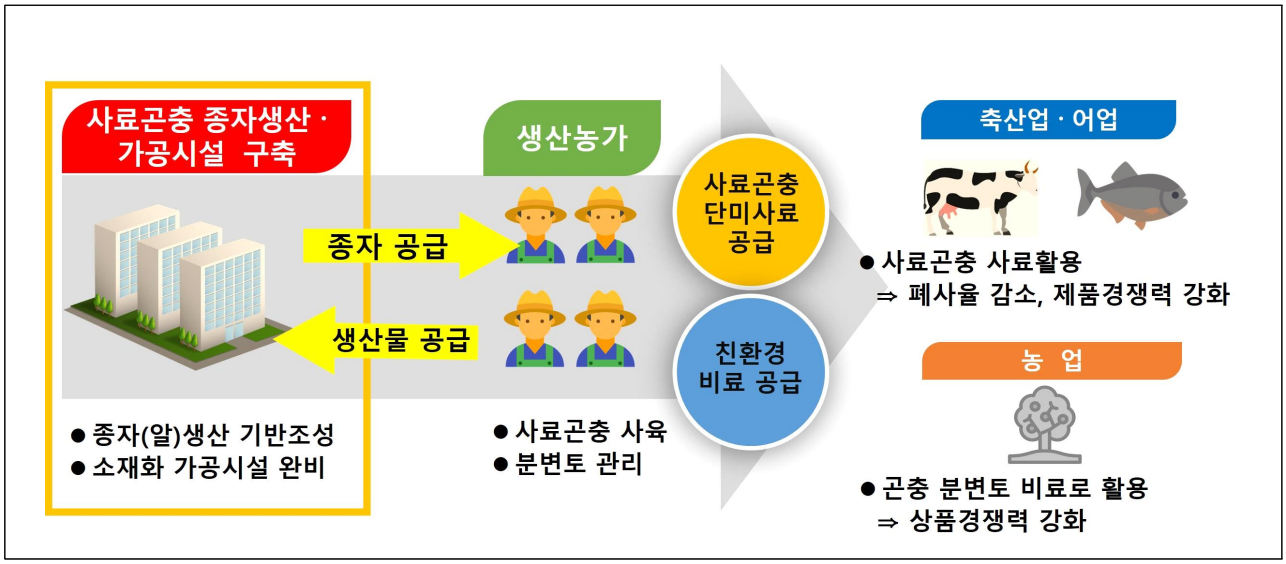
또 통합 곤충브랜드 '골드벅스' 개발 및 전문식품기업과 연계해 식용곤충으로 만든 '프로틴바.BETTER(제품명)' 정식출시 등 다양한 성과를 내놓은 봐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의 곤충산업은 식용곤충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저탄소·친환경 대체단백질, 첨단 생명소재로 곤충이 급부상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 선정은 경북이 곤충산업 핵심거점으로 한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사업별 추진방향

1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 협력농가 생산고도화, 거점농가 가공·유통 전담으로 분야별 전문화 추진



2 곤충유통사업 지원사업

○ 곤충산업 생산, 가공, 유통 분야별 문제점 해결 추진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3(수)】	담당부서	해양레저관광과		
		작 성 자	과 장	도 경 식	
			사무관	최병렬	주무관	강진선
		연 락 처	054-880-7784		

영일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관리 우수 해수욕장 선정

-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최적의 휴식 공간 제공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영일대 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올해 해수욕장 운영 평가에서 코로나19 방역관리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해수욕장의 기본시설 운영·관리, 방역관리, 이용객 편의·만족도 등 운영실태 전반을 평가해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있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모든 이용객 출입 통제 및 관리를 위해 '안심콜' 서비스실시, 해수욕장 출입구마다 'QR코드 인식기' 와 출입통제 로프 및 펜스를 설치해 해수욕장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 발열체크 및 안심손목밴드 착용, 소독게이트 및 열화상카메라 설치해 해수욕장 입장객 관리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수욕장 내 거리두기 홍보 강화, 시설물의 주기적 소독 실시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상은 해수욕장을 찾아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얻은 결실이이다” 라면서, “내년에도 전 해수욕장이 코로나19 방역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최적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3(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작 성 자	과 장	박 찬 국		
			사무관	서열환	주무관	장우정
		연 락 처	054-880-3344			

경북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수어(手語) 방송 진행

- 12일부터 네이버 쇼핑라이브 사이소 채널을 통해 6회 방송 -

- 라이브 방송 시 수어와 함께 전달, 청각장애인에게 도움 -

경북도는 대구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와 함께 경북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자치단체 최초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생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디어 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수어 방송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어 통역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12일 첫 시작으로 올해 11월 말 까지 네이버 쇼핑라이브 사이소 채널을 통해 총 6회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시간 라이브방송으로 수어를 함께 전달하므로 쇼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쇼핑의 즐거움까지 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까지 26차례에 걸쳐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쇼

핑라이브를 이용해 사과・복숭아・한우 등 11,704세트를 판매해 2억 9322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지금까지 누적 시청 횟수 34만 4989회, 공감 42만 8532개, 댓글 56만 157개 등 소비자 참여율이 높아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보증권은 올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조 8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조원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라이브커머스가 쌍방향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채널인 만큼 수어 방송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는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라이브커머스 수어(手語)방송 추진계획 보고

❖ 미디어 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수어 방송 서비스 추진

※ 대구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협업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0. 12 ~ 11. 30.
○ 장　　소 : 스튜디오(대구 중구 동덕로 39, 백운빌딩 3층)
○ 송출채널 : 네이버 쇼핑라이브
○ 방송횟수 : 6회
○ 사 업 비 : 3,000천원 정도
○ 주요내용 : 라이브커머스 수어방송 서비스

추진일정(안)

일 시	시군	판매업체	판매품목
10. 12(화) 14:00	칠곡	과향	만능땡장다대기
	안동	제비원전통식품	된장, 고추장
10. 18(월) 14:00	칠곡	㈜형제	아로니아분말
	경산	한반도	대추신선차
10. 27(수) 14:00	예천	꿀마실	꿀 건강차세트
	영주	선비벌꿀	스틱벌꿀

※ 11월 수어방송 일정은 미정

'21년 라이브커머스 추진실적

○ 운영횟수 : 26회

○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셋트, 명)

판매금액	판매수량	접속자수	비 고
293	11,704	344,989	

○ 좋아요 및 댓글 실적

(단위 : 회)

구 분	좋아요	댓글수	비 고
	428,532	560,157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13(수)】	담당부서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		
		작성자	과 장	유 정 근	
			팀 장	정창호	주무관 김경영
		연락처	054-880-4525		

경북人포럼, 경북도 인구이슈와 대응전략 모색

- 전국 인구분야 전문가 30명 참여 -

- 김근용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진행 -

- 최윤경 연구위원, 이진숙 교수, 배진원 부연구위원 발제 -

경상북도는 1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북 인구이슈와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제2차 '경북人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이슈별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이슈는 '삶의 방식 다양화 경향과 과제(청년의 결혼 및 가족인식을 중심으로)'에 대해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했다.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미혼인구 비중은 모든 연령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30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20년 인구주택 총조사 : 30대 6.9%p, 40대 4.3%p, 50대 2.5%p 순으로 증가(2015년 대비)

또한 핵가족화, 개인주의와 비혼주의 확산 등으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1인 세대가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대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두 번째 이슈인 '지역청년 전출의 실제와 경북의 대응'에 대해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경북의 인구감소 핵심원인인 청년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1~7월 지역 청년인구(15~39세) 4471명이 타 시도로 순이동했으

며, 매월 평균 638명이 경북을 떠났다.

청년의 일자리 욕구 충족을 위한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상생활과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조성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끝으로 '다가오는 과소지역의 대응전략(공간과 사람의 유기적 관점)' 에 대해 배진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과거에는 지역 간 인구감소의 불균형으로 지역 역량에 차이가 발생한 반면 최근에는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 속도로 인해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는 정책에서 인구감소를 포용하는 지역계획으로의 방향 전환과 과소의 기준을 유동인구와 경제활동 등의 개념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가차원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체제와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정악화 및 인구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경북人포럼’ 은 지역 인구문제를 함께 연구・논의하고, 학・연・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교수와 국책 및 지방정책 연구기관의 연구원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지역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북형 정책제안을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했다.

새바람 행복 경북!

- 경상북도 인구이슈와 대응전략 -
「제2차 경북人포럼」 개최 계획

❖ 지역인구문제의 공감대 형성 및 정책적 대응전략 논의

❖ 인구문제 이슈별 내실있는 정책대안 마련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0. 13.(수) 10:00

○ 장　　소 : 도청 pc영상회의실(364호)

○ 참　　석 : 30명 정도(경북人포럼 위원 등)

○ 주　　제 : 경상북도 인구이슈와 대응전략

○ 주요내용 : 이슈별 기초발제 및 집단토의(대면·비대면 병행)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9:50~10:00	10′	○ 등　록	
10:00~10:10	10′	○ 개　회 ○ 인사말씀 ○ 발표 및 토론자 소개	사회 : 대구경북연구원 행정부지사
10:10~10:45	35′	**< 이슈 1 발제 및 토론 >** ○ 삶의 방식 다양화 경향과 과제 - 청년의 결혼 및 가족인식을 중심으로	진행 : 김근용 명예연구위원 발제 : 최윤경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0:45~11:20	35′	**< 이슈 2 발제 및 토론 >** ○ 지역청년 전출의 실제와 경북의 대응	진행 : 김근용 명예연구위원 발제 : 이진숙 교수 (대구대학교)
11:20~11:55	35′	**< 이슈 3 발제 및 토론 >** ○ 다가오는 농촌과소화와 대응전략 - 공간과 사람의 유기적 관점	진행 : 김근용 명예연구위원 발제 : 배진원 부연구위원 (산업연구원)
11:55~		○ 폐회 및 마무리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13(수)】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작성자	과 장	김 동 기	
			팀 장	이황임	주무관	한 식
		연 락 처	054-880-2334		

어제보다 더 안전한 경북,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10월 현재, 대상 1704개소 중 1215개소 점검 완료 -
- 12일, 영양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 -
- 20일까지, 점검 완료 시설 대상 이행실태 점검 -

경상북도는 지난 8월 30일부터 지역 내 모든 안전관리주체가 참여해 실시하는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체전 경기장 107개소, 노후시설물, 교량, 산사태위험 지역 등 총 점검대상 1704개소 중 현재까지 1215개소(공공 624, 민간 591)를 점검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6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22개 시군(울릉군은 자체점검)의 점검 완료 시설(88개)을 대상으로 현장을 재방문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 확인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평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시설에 대한 사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문가 참여 · 첨단장비 활용 여부 등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 검검의 적정성 확인, 점검결과 안전조치 여부 등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등이다.

지난 9월 영덕시장의 대형화재를 비롯해 안전 분야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12일 영양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전기·가스·소방 등 각종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와 9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시 지적된 보행로 전선 노출 등 전기 및 소방 분야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와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전통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생계 터전으로 더욱 세밀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결과에 대한 빠른 피드백으로 안전조치와 관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3(수)】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단		
		작 성 자	단 장	정 상 원	
			팀 장	이애희	주무관 안순모
		연 락 처	054-467-1542		

전국체육대회, 방역 금메달 따기 위해 온 힘 쏟는다!

- 선수 전용 선별검사소 운영, 경기 차질 없도록 신속한 결과 통보 -
- 6개 상설 선별검사소, 2개 출장 선별검사소 운영-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5일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없이 안전하게 치러지고 있다.

경북도(전국체전기획단)는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순연돼 개최된 만큼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세우고 선수 전담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안전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선수와 임원 등 모든 참가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경기가 열리는 6개 시군(포항, 구미, 김천, 영주, 안동, 경산)에는 선수단 전용 상설 선별검사소를 설치했다.

또 상대적으로 선수가 적은 2개 시군(영천, 대구)에는 출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이용하도록 했다.

선수 전담 선별검사소는 경북도 감염병관리과에서 운영(민간위탁)하며 선수의 경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 2회(오전, 오후) 검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통보해주고 있다.

선별검사소 이용자 수는 12일 현재까지 총 7436명으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

구미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은 경북육상연맹 부회장 김국현(60세, 문경)씨는 “선수와 임원, 심판을 위해 선별검사소를 마련해 준 덕에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 한다” 라고 말했다.

정상원 경북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수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며 “남은 기간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국체전으로 마무리 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지난 9월 코로나19 방역매뉴얼을 만들어 시도와 대한체육회 등에 배포하고 경기가 열리는 시군에는 방역물품과 방역택시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역매뉴얼에는 선수 등 대회 관계자 3일마다 PCR검사 실시(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경기 입장 전 PCR검사 확인 및 개인소독철저, 선수단 숙소 1인 1실 권고 등의 방역지침이 담겼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10.13(수)】	담당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작 성 자	과 장	박 영 규	
			담 당	조상국	담당자 남학모
		연 락 처	054-880-6332		

경북소방,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조심 또 조심

- 올해 9월 말 기준, 농기계 사고 433건 · 사망 20명 부상 413명 -
- 60대~80대 사망사고 가장 많아 -
- 고령화로 조작 미숙, 부주의가 주요인 -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13일 수확철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의하면 9월 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로 이송된 환자는 433명(사망 20명, 부상 413명)이며, 수확이 시작되는 9월에 40명(사망 2명, 부상 38명)이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 기종별로는 경운기 15명(75%), 트랙터 5명(25%)이며, 연령별로는 80대 8명(40%), 70대 7명(35%), 60대 4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사유는 농기계 사용 증가와 작업자 고령화로 인한 기계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사용 행동요령을 준수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계 사용 행동요령은 ▷농기계 안전점검 ▷작업 복장과 보호 장구

착용 ▷적절한 휴식 ▷음주운전 엄금 ▷교차로 신호 준수 ▷농기계 등화장치(반사판) 설치 ▷농기계 동승 금지 ▷논밭 출입 시 주변 안전 확보 등이 있다.

김종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농기계 조작 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

▢ 3년간 총 이송건수 : 2,423건 (3년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423	69	66	193	248	305	271	218	224	205	305	237	82
2020	777	19	22	62	85	82	94	47	89	67	120	73	17
2019	847	36	27	77	90	124	97	58	57	49	99	98	35
2018	799	14	17	54	73	99	80	113	78	89	86	66	30

➡ 3년간 9월 ~ 11월 활동실적 747건(30.8%)

▢ 2021년 출동건수 451건

(2021. 09. 31. 기준)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451	12	25	51	46	70	87	46	70	44	–	–	–

➡ 451건 출동에 433건 이송환자 발생(18건은 부상 없음 등으로 미이송)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3(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작 성 자	과 장	백 승 모		
			사무관	정기수	주무관	김정숙
		연 락 처	054-880-3368			

이철우 경북도지사, 농가 벼수확 도움에 구슬땀!

- 문경 영순면 율곡리 황금 들녘에서 벼베기 및 농업인 격려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 문경 영순면 율곡리 농가를 찾아 콤바인에 직접 탑승해 벼 베기 작업을 도우며 농업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업에는 고윤환 문경시장, 도의원,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벼 베기를 농지의 소유자인 홍의식(56세)씨는 쌀 농업인을 대표하는 한국쌀전업농 경북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홍의식 농가는 벼와 논콩 재배면적이 50ha에 달하는 대농가로 벼 베기를 한 농지는 지난 5월 15일 '일품벼'를 모내기한 후 150일 만에 수확하게 됐다.

*일품벼 : 1991년 국내육성품종, 찰기가 있어 밥맛이 좋음. 경북 벼 재배면적 55%

한편, 올해 경북도 벼 생산 예상량은 재배면적은 지난해 9만 7255ha보다 1.5%줄어든 9만 5830ha로 집계됐다.

생산량은 분얼기(가지치는 시기)에 적정한 기온과 강수로 이삭수가 증가하고, 유수 형성기(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기상여건이 좋아 지난해 49

만 5055t보다 3.7% 증가한 51만 3212t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쌀은 고급화하고 밀과 콩 등은 생산을 늘려 식량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도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도지사, 문경 벼베기 행사계획

행사개요`

○ 일　　시 : 2021. 10. 13.(수) 16:00 ~

○ 장　　소 :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820-1번지(4,023㎡)

※ 홍의식 농가(쌀전업농 도연합회장)

○ 참석인원 : 30명 정도

* 주요참석자 : 도지사, 문경시장, 도의원, 농협경북지역본부장 등

○ 행사내용 : **벼 수확, 마을주민과 새참 및 환담**

< (사)한국쌀전업농 경상북도연합회 >

▸ 설립일 : 1997. 12. 12. (회장 홍의식, 56세)
▸ 회원수 : 10,410명 (임원 10, 회원 10,400) ※ 전국 7만명
▸ 소재지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30(동호동 492-4, 농업인회관 2층)
▸ 지원사업 현황('21년) : 5종, 354백만원
- 회원교육(14백만원), 쌀 전시·홍보(3종, 32), 정보지 구독(4,283부, 308)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 ~ 16:20	20′	▸ 이동(문경 신기동 → 영순면 율곡리)	· 18km
16:20 ~ 16:30	10′	▸ 마을주민, 현장관계자 인사 ▸ 작업복 환복	
16:30 ~ 17:00	30′	▸ 벼베기(콤바인) - 일품벼 *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820-1	· 홍의식 농가(56세)
17:00 ~ 18:00	60′	▸ 새참 및 환담	· 마을주민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3(수)】	담당부서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작 성 자	소 장	지상철	
			담 당	이동건	담당자 현준우
		연 락 처	054-830-8842		

내수면 수산물 시제품, 경북식품박람회에서 최고 인기

-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개발시제품 2종 전시·홍보 -

- 3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에게 호평 -

- 민간기술 이전, 시장조사 통해 식품개발 기초자료 활용 -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에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구미코에서 개최된 '2021 경북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센터는 박람회 기간 내수면 수산물을 이용한 개발 시제품 2종을 전시·홍보해 내수면 어업인 및 관람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간편식인 레토르트 송어구이와 메기를 활용한 펫 간식 2종의 시제품을 선보였다.

'레토르트 송어구이'는 송어를 손질 없이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최근 가정 간편식 수요증가를 반영해 개발했다.

'메기 펫 간식'은 매년 커지고 있는 펫 푸드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메기를 이용해 반려동물 간식을 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638만 가구에 달하고 반려동물

에게 영양식을 먹이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이번에 개발된 시제품 2종에 대해 민간 기술이전 계약과 시장조사를 통해 향후 생산·판매·수출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개발될 시제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수면 수산물 식품개발을 위한 '경상북도 내수면 수산물 식품개발 연구개발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1억 2500만원)를 반영했다.

내수면 수산물 식품개발 연구개발 센터 건립

○ 사업위치 : 경북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 706(토속어류산업화센터 내)
- 규 모 : 대지면적 2,400㎡, 연면적 1,800㎡(2동), 지상2층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지방비 2,500)
- 연 도 별 : '22년 250백만원, '23년 2,250 백만원 '24년 2,500 백만원
○ 사업내용 : 식품연구개발 및 수산 가공 R&D 지원시설

문성준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상품 트렌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식품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내수면 양어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내수면 수산물 개발 시제품 현황

❖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로 수산업 미래산업화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양식어가 경기 활성화 및 소득증대

Ⅰ 개 요

○ 기 간 : 2021. 5월~8월(4개월)

○ 사 업 비 : 25백만원 (도비)

○ 사 업 량 : 2개품목 2종 시제품 개발(송어, 메기)

- 레토르트 송어구이 : 가정간편식(HMR), 펫간식 : 발효 메기 큐브

○ 주요내용 : 내수면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Ⅱ 추진일정

○ ′21년 5월 : 제품개발 업체탐색 및 제품개발 의뢰

○ ′21년 6 ~ 7월 : 시제품 생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 ′21년 8 ~ 9월 : 시제품 개발 완료 및 유통망 확보 추진

Ⅲ 추진현황

○ 레토르트 송어구이, 펫간식 시제품 생산완료

○ 포장디자인 개발 진행 중(′21년 7월 중 완료예정)



<포장디자인 시안(레토르트 송어구이)>



<포장디자인 시안(펫간식, 메기큐브)>

Ⅳ 향후계획

○ 자가품질검사 등 후속 행정작업 진행

○ 유통망 확보 추진

- 보이소TV, 사이소몰, 롯데마트 안테나 숍 등 온·오프라인망 확보
- 판매량을 바탕으로 선호도 조사 및 시제품 개발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

Ⅴ 기대효과

○ 내수면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로 내수면 수산업 미래산업화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양어가 경기 활성화 및 소득증대 도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0. 13(수)】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작 성 자	과 장	이 원 철		
			사무관	김종상	주무관	정성웅
		연 락 처	054-880-7033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고충 해결에 박차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본격 운영 -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와 상담을 위해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에는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 3명,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경찰관 1명, 대학에서 행정학과 심리학을 담당하는 교수 2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자치경찰총괄과장이 임명됐으며 그 밖에 공무원 위원 4명과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초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려고 했으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5명의 여성 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인사 · 조직 · 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한 행위 등을 심사한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사안별로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해 처리한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조직도 내부 결속이 약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며, “위원회는 조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고충 해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초대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출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대책 수립 지시 등 다양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중 경정 이하의 임용권 중 일부를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계획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해소**와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위촉식 개요

○ 일　　시 : '21. 10. 13(수) 13:30 ~ 14:30

○ 장　　소 :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경북도청 홍익관 3층)

○ 참　　석 : 10명 내외

- (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자치경찰총괄과장 등
- (위　원) 고충심사위원회 위촉 예정 민간위원 등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 자치경찰제 및 고충심사위원회 설명, 의견교환 등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 ~ 13:31	1'	▸ 개　식	사회자
13:31 ~ 13:33	2'	▸ 내·외빈 소개	〃
13:33 ~ 13:45	12'	▸ 자치경찰제 및 고충심사위원회 설명	인사팀장
13:45 ~ 13:50	5′	▸ 위촉장 수여	위원장
13:50 ~ 13:53	3′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
13:53 ~ 14:25	32′	▸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	
14:25 ~ 14:30	5′	▸ 기념촬영	
14:30		▸ 폐회	

동 정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주 이산선원 복설 준공식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오전 영주 이산면 석포리에서 열린 이산서원 복설 준공식과 봉안고유제에 참석했다. 이번에 복원된 이산서원은 1558년(명종13)에 창건, 1574년(선조7)에 사액, 1871년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된 이후 150년 만이다. 이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규약의 효시로서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